

#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에 관한 연구

한세영 · 이가연<sup>1</sup>

대전대학 치위생과, <sup>1</sup>서라벌대학 치위생과

색인 : 치과위생사, 우울

## 1. 서론

우울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부터 병적인 기분상태까지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침울함,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기분장애를 말한다<sup>1)</sup>. 누구나 평생동안 자주 겪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정신과 영역에서는 가장 흔한 현상의 하나로서 슬픈 감정이나 저조한 기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이며<sup>2)</sup> 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고 성인 중에 약 12%가 심한 우울증에 걸린적이 있을 만큼 가장 보편적인 증상이다<sup>3)</sup>. 그러나 우울증은 단순한 우울과 같은 기분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지적, 신체적, 행동적 증상을 동반하며, 대인관계나 직업 등의 일상생활 영역에 까지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도 있다<sup>4)</sup>.

최근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건강문제는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

정이다. 이런 정신적 건강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왜냐하면 건강 그 자체가 복합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다.

오늘날 병원은 건강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전 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그 구조와 기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치과의료기관도 중소형의 치과의원이 대형화되는 등 근무환경이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sup>5)</sup>.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며 국민구강보건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치과의사의 구강진료량을 최대한 증가시키면서도 구강진료 대상자에게는 양질의 구강진료를 제공하는 분업화된 구강진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인력관리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고 하겠다<sup>6)</sup>.

반면, 치과위생사들의 과중한 업무량과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는 단순한 업무와 주의력을 요하는<sup>7)</sup> 직무에서 오는 치과위생사의 우울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치과의료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우울수준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이 청소년<sup>8)</sup>, 간호사<sup>9,10)</sup>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등에 따른 우울수준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의 관련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대전광역시 소재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54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52부를 제외한 202부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2.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은 표준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문항, 직업관련 특성 7문항, 건강관련 행위 7문항, 우울수준 20문항으로 하였다.

우울수준의 측정은 Zung<sup>11)</sup>의 자기평가식 우울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다. SDS는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긍정적인 문항에는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4점 척

도로 1-2-3-4점을 주었고, 부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의 4점 척도로 4-3-2-1점을 주어 총 득점 합계(20~80점)를 우울의 지표로 하였다. 평가는 50점 미만을 정상군, 50~59점을 경도 우울증, 60~69점을 중등도 우울증, 70점 이상을 중증 우울증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점 미만을 우울증상이 없는 「정상군」으로, 50점 이상을 경증 이상의 「우울증상이 있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 2.3. 통계분석

연구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ver 1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각 독립변수에 따른 우울수준의 분포의 차이는 Chi-square로 분석하였고, 우울수준과 관련된 제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분포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분포를 보면, 연령별로는 26세 이하군 62.9%로,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군 74.3%로,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하군 90.1%로, 근무경력별로는 4년 이하군 66.8%로, 1일 평균 근무시간별로는 9시간 이하군 87.1%로, 주당 평균 잔업시간별로는 1시간 이하군 72.3%로, 1일 평균 환자수별로는 40명 이하군 64.9%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별로는 「만족한다」는 군 64.4%로, 업무에 대

Table 1. Socio-demographic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Variables	N	%
Age(year)		
$\leq 26$	127	62.9
$27 \leq$	75	37.1
Marital status		
Single	150	74.3
Married	52	25.7
Education		
Junior College	182	90.1
College & Over	20	9.9
Clinical career(year)		
$\leq 4$	135	66.8
$5 \leq$	67	33.2
Job work(hour/day)		
$\leq 9$	176	87.1
$10 \leq$	26	12.9
Overtime work(hour/week)		
$\leq 1$	146	72.3
$2 \leq$	56	27.7
Patient number(day)		
$\leq 40$	131	64.9
$41 \leq$	71	35.1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Satisfaction	130	64.4
Dissatisfaction	72	35.6
Fit to the job		
Fit	157	77.7
Unfit	45	22.3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Good	180	89.1
Poor	22	10.9
Total	202	100.0

한 적성별로는 「맞는다」는 군 77.7%로,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간의 유대관계별로는 「유대관계가 좋다」는 군 89.1%로 그렇지 않은 군보다 높았다(Table 1).

### 3.2. 우울수준

#### 3.2.1.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

조사대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은 우울증상이 없다는 정상 군이 80.2%, 경증 이상의 우울증상이 있다는 군이 19.8%를 차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우울수준을 보면 연령별

Table 2. Distribution of depress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N	Depression		p-value*
		<50 <sup>1)</sup>	50≤ <sup>2)</sup>	
Age(year)				0.499
≤26	127	100(78.7)	27(21.3)	
27≤	75	62(82.7)	13(17.3)	
Marital status				0.354
Single	150	118(78.7)	32(21.3)	
Married	52	44(84.6)	8(15.4)	
Education				0.247
Junior College	182	144(79.1)	38(20.9)	
College & Over	20	18(90.0)	2(10.0)	
Total		162(80.2)	40(19.8)	

<sup>1)</sup>Normal range group, <sup>2)</sup>Depression group

Table 3. Distribution of depression by job-related characteristics

Variables	N	Depression		p-value*
		<50 <sup>1)</sup>	50≤ <sup>2)</sup>	
Clinical career(year)				0.635
≤4	135	107(79.3)	28(20.7)	
5≤	67	55(82.1)	12(17.9)	
Job work(hour/day)				0.042
≤9	176	145(82.4)	31(17.6)	
10≤	26	17(65.4)	9(34.6)	
Overtime work(hour/week)				0.123
≤1	146	121(82.9)	25(17.1)	
2≤	56	41(73.2)	15(26.8)	
Patient number(day)				0.728
≤40	131	106(80.9)	25(19.1)	
41≤	71	56(78.9)	15(21.1)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0.000
Satisfaction	130	116(89.2)	14(10.8)	
Dissatisfaction	72	46(63.9)	26(36.1)	
Fit to the job				0.003
Fit	157	133(84.7)	24(15.3)	
Unfit	45	29(64.4)	16(35.6)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0.039
Good	180	148(82.2)	32(17.8)	
Poor	22	14(63.6)	8(36.4)	
Total		162(80.2)	40(19.8)	

<sup>1)</sup>Normal range group, <sup>2)</sup>Depression group

Table 4. Distribution of depression by health-related behaviors

Variables	N	Depression		p-value*
		<50 <sup>1)</sup>	50≤ <sup>2)</sup>	
Coffee drinking				0.938
Yes	176	141(80.1)	35(19.9)	
No	26	21(80.8)	5(19.2)	
Having breakfast				0.712
Yes	50	41(82.0)	9(18.0)	
No	152	121(79.6)	31(20.4)	
Cigarette smoking				0.172
Yes	15	10(66.7)	5(33.3)	
No	187	152(81.3)	35(18.7)	
Regularly exercise				0.195
Yes	68	58(85.3)	10(14.7)	
No	134	104(77.6)	30(22.4)	
Alcohol drinking				0.048
Everyday/Sometimes	141	118(83.7)	23(16.3)	
Never	61	44(72.1)	17(27.9)	
Sleeping hours(/day)				0.154
7~8	140	116(82.9)	24(17.1)	
<7 or 8<	62	46(74.2)	16(25.8)	
Subjective health status				0.000
Healthy	159	139(87.4)	20(12.6)	
Unhealthyh	43	23(53.5)	20(46.5)	
Total		162(80.2)	40(19.8)	

<sup>1)</sup>Normal range group, <sup>2)</sup>Depression group

로는 연령이 낮은 군에서, 결혼상태별로는 미혼군에서,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하군에서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 3.2.2.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

직업관련 특성별 우울수준을 보면 1일 평균 근무시간별로는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 군에서(p=0.042), 업무에 대한 만족도별로는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에서(p=0.000), 업무에 대한 적성별로는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p=0.003),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간의 유대관계별로는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p=0.039) 유의하게

높았다(Table 3).

### 3.2.3.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

건강관련 행위별 우울수준을 보면 음주빈도별로는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p=0.048), 주관적인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에서(p=0.000) 유의하게 높았다(Table 4).

### 3.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r=-0.332, p=0.000), 업무에 대한 적성이 낮을수록(r=-

Table 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depression and its related factors

Variables	Depression	
	Correlation coefficients	p-value
Sense of satisfaction in work	r = -0.332	0.000
Fit to the job	r = -0.353	0.000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r = -0.215	0.002
Alcohol drinking	r = -0.183	0.009
Subjective health status	r = -0.333	0.000

0.353, p=0.000),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r=-0.215, p=0.002),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r=-0.183, p=0.009),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r=-0.333, p=0.000) 우울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 4. 총괄 및 고안

오늘날 병원조직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역할수행이 체계화되어 전문적인 직업의식이 필요로 하는 이 시점에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경험하는 과다한 업무량, 많은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갈등들이 직무만족이나 생산성 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간호사의 우울은 대인관계를 원활한 작용을 저해하고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의 질을 저해하게 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sup>12)</sup>, 비슷한 업무 특성을 가진 치과위생사의 경우도 유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정신건강의 지표가 되는 우울은 개인의 건강문제인 동시에 업무수행 능력 감소, 환자 간호의 질 저하, 잦은 이직 현상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인력관리를 중시해야 한다<sup>13)</sup>.

지금까지 건강수준의 특징은 진단검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

회적 기능을 진단하는 사회의학적 건강지표(sociomedical health indicator)로 주관적 측정에 의해 진단할 수도 있다<sup>14)</sup>.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건강지표를 활용하여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울수준의 측정도구는 그 신뢰도가 인정되고 있는 Zung<sup>11)</sup>의 자기평가식 우울척도(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은 정상군이 80.2%, 우울증상이 있는 군이 19.8%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수준은 윤<sup>15)</sup>의 연구에서 정상군이 62.7%, 우울증상이 있는 군이 37.3%로 보고한 결과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직업관련 특성별로는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일수록, 업무에 대한 적성이 「맞지 않는다」는 군일수록,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sup>15)</sup>와도 유사한 양상으로 자신의 직무생활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외부 사회에 대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며<sup>16,17)</sup>, 자신의 직무를 만족하고 갈등을 야기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조직 외부에서뿐 아니라 조직내부에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본인이 만족하게 되므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련 행위별로는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다른 연구<sup>18)</sup>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적당한 음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지나친 음주는 신체적 질병과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우울수준의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던 음주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윤<sup>15)</sup>의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른 연구에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9)</sup>. 이는 오히려 우울수준으로 인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업무에 대한 적성이 낮을수록,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단면연구로 우울수준의 역학적 특성은 파악할 수 있었으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였고, 대전광역시 일부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표준화되었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방법에 의해 측정하였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개재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여러 독립변수들이 우울수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이 정상범주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울을 경험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 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파악하고자 대전광역시 소재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0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 건강관련 행위, 우울수준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은 우울수준을 종속변수로 기타 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변량 분석 및 상관관계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전체 조사대상 치과위생사의 우울수준은 정상군이 80.2%, 우울증상이 있는 군이 19.8%로 나타났다.
2. 우울수준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군에서( $p=0.042$ ),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p=0.000$ ), 업무에 대한 적성별이 「맞지 않는다」는 군에서( $p=0.003$ ),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 간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는 군에서( $p=0.039$ ), 음주빈도가 음주를 하지 않는 군에서( $p=0.048$ ),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군에서( $p=0.000$ ) 유의하게 높았다.
3. 우울수준과 관련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r=-0.332$ ,  $p=0.000$ ), 업무에 대한 적성이 낮을수록( $r=-0.353$ ,  $p=0.000$ ), 직장에서의 상사나 동료간의 유대관

계가 좋지 않을수록( $r=-0.215$ ,  $p=0.002$ ), 음주를 하지 않을수록( $r=-0.183$ ,  $p=0.009$ ),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r=-0.333$ ,  $p=0.000$ ) 우울수준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울수준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업관련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련 행위의 실천 여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들의 우울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인구학적 특성, 직업관련, 건강관련행위 외에도 사회심리적 요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1. 이순희. 일부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와 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 김정희. 스트레스 평가와 대처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95;7(1):44-69.
3. 원호택. 이상심리학. 서울:법문사 1997.
4. 윤현수. 우울에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5. 최은영.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및 신체손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6. 강부월. 치과위생사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2002;20(1): 83-91.
7. 이성숙, 권혜진. 치과위생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간호논문집 1998; 2(1):121-139.
8. 이재우, 이길홍, 민병근. 학생 청소년이 지각한 신체형과 우울성향간의 관계분석. 신경정신의학 1985;24(4):523-531.
9. 이숙. 임상간호사의 자아상태, 대인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상호교류분석을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001;10(4):604-614.
10. 이미옥. 임상간호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련성.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1. Zung WWK.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1965;12(1): 63-70.
12. Motowidlo SJ, Manning M, Packard JS. Occupational stress : Its causes and consequences for job performance. Appl Psychology 1986;71(4):618-629.
13. Williams, CA. Empathy and burnout in male and female helping professionals. Res Nurs Health 1989;12:169-178.
14. Elinson J. Introduction to the theme: sociomedical health indicators. Int J Health Serv 1978;6(3):385-391.
15. 윤현숙.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요인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6. 전화연, 박지희, 임현빈. 임상간호사의 직무만족도와 피로의 상관관계 연구. 동남보건대학교 논문집 2000;18(2):95-107.
17. 이소라. 말기암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부담감과 우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안동성, 이영호, 정영조. 남자 직장인에서 흡연과 우울, 스트레스와 다른 물질 사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4;33(6): 1409-1424.
19. Herr KA, mobily PR. Chronic pain and depression. J Psych Nur 1992;30(9):7-12.

**Abstract**

## A study on the degree of depression in dental hygienists

Se-Young Han · Ka-Yean Lee<sup>1</sup>

*Dept. of Dental Hygiene, Hyejeon College*

*<sup>1</sup>Dept. of Dental Hygiene, Sorabol College*

Key words : dental hygienist, depression

**Objectives :** The degree of depression in dental hygienist was analyzed to reveal the various factors related to them.

**Methods :**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filled out from 202 dental hygienist in Daejeon City. The survey items included subjects' socio-demographic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health-related behaviors, depression. Chi-Square analysis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as put into survey results, in which a degree of depression was dependent variable and others were independent variable.

**Results :**

1. The distribution for depression degree has shown the rate as 80.2% in normal range group and 19.8% in depression group.
2. As for depression, long working hours( $p=0.042$ ), poor sense satisfaction in work( $p=0.000$ ), not fit to the job( $p=0.003$ ), low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p=0.039$ ), without alcohol drinking( $p=0.048$ ), poor subjective condition of health( $p=0.000$ ) than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3. Concerning cor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various factors, poor sense satisfaction in work( $r=-0.332$ ,  $p=0.000$ ), not fit to the job( $r=-0.353$ ,  $p=0.000$ ), low personal relation with peer works or supervisors( $r=-0.215$ ,  $p=0.002$ ), without alcohol drinking( $r=-0.183$ ,  $p=0.009$ ), poor subjective condition of health( $r=-0.333$ ,  $p=0.000$ ).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depression state could be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which include socio-demographic, job-related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depression state of dental hygienist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to manage and research for them are required to be revitalized as well as socio-demographic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and health-related behaviors.

접수일-2009. 08. 26    수정일-2009. 12. 14    게재확정일-2009. 12. 23